

## 변호사시험, 이제 지방에서도 응시 가능 -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대전지역 확대실시-

- (1) 법무부는 지방 로스쿨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내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(충남대)으로 확대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
- (2)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시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,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시험응시 주체인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으로 확대하게 되었음
- (3) 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는 2일 이상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사시 2차,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舊 행정고시) 2차 및 각종 자격시험(공인회계사, 변호사, 법무사, 관세사 등)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것임
- (4)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. 1.부터 11. 7.까지 7일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로 대전권역(충남대)를 희망할 경우 시험장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시험편의를 도모할 예정임
  -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, 교내 기숙사 500실도 구비되어 있어 사전 예약을 하면 시험기간 동안 사용 가능함
- (5) 이번 대전권역 확대실시로 인해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권역에서 응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충남대학교 기숙사 활용으로 숙박에 따른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
- (6)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